

한인 이민자 귀환이민 의향 결정요인: 호주 한인 사례

정용문*

요약

귀환이민은 최근 한인들의 국제 인구이동에서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한인 이민자들의 귀환이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로서, 귀환이민 예측요인에 대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유례없는 양적 연구로 설계되었으며, 호주 한인들의 사례를 이용했다. 기존에 분석방법으로 주로 이용되어 온 이항 분석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귀향이민 의향 척도를 사용하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독립변수들은 경제적 요인, 이민국 적응 요인, 그리고 개인의 생애주기 요인 등으로 구성했다. 호주 한인 사례를 통해 획득한 귀환 욕구 및 의향, 귀환 촉진 및 억제 요인에 대한 통찰이 한인 이민자 또는 더 나아가 비한인 이민자 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촉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들의 귀환 의향에 차별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이민자 지원 체계 및 다문화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어: 귀환이민(역이민, 귀국이민), 의향, 결정요인, 호주 한인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ymjung@kyungnam.ac.kr)

1. 서론

1) 배경

이민은 인구 이동의 방향, 동기, 체류기간 및 인구 이동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역동적인 현상이다(윤인진, 2011). 흔히 이민은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이민의 상당수는 귀환이민(return migration)이나 제 3국으로의 재이민(remigration) 등 후속 이민(subsequent migration)이 차지하고 있다. 후속 이민은 그 규모를 통계로 집계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후속 이민은 단지 비자나 국적의 변경만으로는 추산되지 않으며, 개인의 국제 이동의 경로와 사유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하는 제약 때문이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8).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속 이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제 교통과 통신의 용이화로 인해 단기 이민과 국가간 순환이주(circular migration)가 증가하고 있는 후속 이민을 촉진하는 거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8).

후속 이민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는 귀환이민이다. 귀환이민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며, 이에 대한 연구 관심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귀환이민은 최초 이민 이후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 연구는 귀환이민 연구를 동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국제 학계에서 귀환이민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이민과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로 확립되어 왔다(Gmelch, 1980).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이주를 한 이민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대적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196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인력을 해외로 송출해왔다(이미숙, 2017). 1990년대부터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이 이민을 선택했고, 최근에는 국내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청년 해외취업이 정책적으로 장려됨과 동시에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단기성 노동이주를 경험하고 있다(K. Jung & Jung, 2019). 이들의 상당수는 해외 장기 체류로 귀결되고 있다(Y. Jung, 2018).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이민 이출(emigration)의 결과로 한국은 대규모의 재외동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잠재적인 귀환이민자 풀(pool)이 존재함을 의미한다.¹⁾

1) 2019년 현재 재외동포는 750만명에 이른다(외교부, 2019).

〈표 1〉 귀환이민 추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해외이주 ²⁾ (A)	42,036	45,256	30,646	17,436	14,734	14,262	9,568	1,443	6,330	4,037
귀환이민 ³⁾ (B)	4,199	4,164	3,892	3,621	3,561	2,733	2,478	2,046	1,653	1,478
비율(B/A)	10.0	9.2	12.7	20.8	24.2	19.2	25.9	141.8	26.1	36.6

자료: (통계청, 2020)

실제 한국으로 이미 귀환한 이민경험자들의 인구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이민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외화위기 이전까지 매년 4천명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왔다(세계한민족문화대전, 2018). 국내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0년대 중반까지 귀환이민은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그 규모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귀환이민의 규모는 논리적으로 이민 유출의 규모와 관련성이 있어서, 해외이주가 증가할수록 귀환이민도 시차를 두고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민의 감소는 증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이민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한국인들의 국제 이동에서 귀환이민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돌아오는 이민 대비 나가는 이민의 비율은 30%를 상회하고 있다.

2) 목적

귀환이민은 새로운 사회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인들의 국제 인구이동에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임은 분명하다. 귀환이민과 관련된 언론 기사는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귀환이민자들의 귀환 사유와 생애경험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을 통해서도 일화적으로(anecdotally) 접할 수 있다. 귀환이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귀환이민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다. 사실 귀환이민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경험적인 연구로는 김영철(2016)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 외에 한인 이민자의 귀환을 다룬 해외 경험연구로는 Lee, Friesen, & Kearns(2015)의 연구가 있다.

국내에서 기존 귀환이민에 대한 연구 관심의 부족과 최근 이에 대한 관심 증대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이민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민은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관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는 다시 돌아오는 이민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

2)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 전에 외교부에 신고한 이와 현지에서 해외이주 신고한 이를 포함

3) 영주귀국 신고자

나, 최근에는 이민이 다양한 형태의 후속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이민의 동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과거의 이민 이출은 국가의 주도하에 목적적으로 이루어졌고, 일정기간 이후에 자연스럽게 귀환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반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귀환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여 자발적으로 이주를 결정한 경우들이다. 스스로 해외이주를 선택한 이들은 해외에 장기체류할 것으로 가정될 수 있는데, 그 가정과는 달리 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지에 대한 사회적 호기심이 작동하는 것이다.

귀환이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 초기 축적단계에 있는 상황이지만, 귀환이민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대한 추정들은 몇몇 연구들이 제시해 왔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등의 정치경제적 요인, 노인들의 복수국적 허용 등의 재외동포 친화적인 정책의 도입, 그리고 자녀들(2세대 이민자)의 성장과 안정적 정착 이후 귀국을 하는 생애주기적 요인 등이 귀환이민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들이다(세계한민족문화대전, 2018). 그러나 이 가정들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여전히 탐색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귀환이민이 미주 등 특정지역의 한인들에 한정된 경험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재외동포의 경험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Y. Jung, 2015). 귀환이민은 귀소본능이 작동하는 노년기 이민자들에게 더 강하게 관찰된다는 가설도 있지만(이종국, 2016)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노년층에서 한국 복귀 의향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Y. Jung, 2016).

본 연구는 한인 이민자들의 귀환이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로서, 한인 이민자들의 귀환이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귀환이민을 고려하게 만드는 유인요인들(pull factors) 혹은 추진요인들(push factors)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테스트하고자 한다. 이민에 대한 결정과 목적국에서의 실제 이민 경험은 이민이라는 유사한 맥락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고유하듯이, 귀환에 대한 결정 역시 개인별로 차별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국의 정치경제적 위상 개선이 귀환이민의 유인요인으로서의 잠재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민자 개인들의 귀환 욕구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들이 귀환 욕구가 강한 지 혹은 약한 지에 대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이 목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후 귀환이민 연구를 촉진하고, 귀환이민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논의

귀환이민은 대략 “해외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들이 영구 혹은 장기체류 목적으로 다시 출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국제 이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9, p. 184). 학자와 문헌마다 세부적인 조작적 정의는 다양하다. 특히, 이민의 목적과 장기체류 기간을 두고 귀환이민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이견이 있어왔다. 이는 이민 통계작성 과정에서 주요한 이슈가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외교부는 해외 영주권 혹은 시민권 보유자의 영주 귀국을 귀환이민으로 간주한다(세계한민족문화대전, 2018). 이 접근법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외의 다양한 자격과 형태로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다 귀국하는 이들을 귀환이민으로 분류하지 않아 귀환이민을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제기구는 비자 유형보다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귀환이민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1년 이상 해외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귀환이민으로 간주한다(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1998).

귀환이민은 역동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서 다양한 형태를 띤다. 귀환이민의 결정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다. 개인의 이민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해외체류 기간도 다양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귀환이민을 결정하는 이도 있고, 일정기간동안 목적국에 정착하면서 귀환이민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이들도 있다. 물론, 귀환이민에 대한 의향이 없는 이들도 많으며, 실제로는 이들이 다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Segal, 2016). 귀환이민 의향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 귀환이민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귀환이민 의향과 실행가능성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Cassarino, 2004; Gmelch, 1980).

이처럼 귀환이민은 다양한 이슈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환이민은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그리고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그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국제적으로 귀환이민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귀환이민 현상은 이론화가 덜 진행된 분야로 간주된다. 대체로 이민 이론에 기초하여 귀환이민이 설명되어 온 경향이 있다(Kunuroglu, van de Vijver, & Yagmur, 2016).

귀환이민에 대한 초기 이론적 논의는 Gmelch(1980)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귀환이민자들의 출신국 재정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초 이민이 임시(temporary) 이민이냐 아니면 영주(permanent) 이민이냐에 따라 재정착 욕구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 Gmelch(1980)에 의하면, 임시 이민자의 귀환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반면 영주 이민자는 귀환은 목적국에서의 적응 실패의 결과로 본다. 적응 성공 혹은 실패의 기준은 특히 목적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한다.

귀환이민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이론화 작업은 Reyes(1997)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녀는 귀환이민을 다음 네 가지 이론적 관점으로 유형화했다. 첫째는 실망이론(disappointment theory)으로서, 이 관점은 귀환이민을 이민의 실패로 간주한다. 즉, 목적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목적국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민이 안겨줄 혜택을 오산(miscalculate)한 것이다. 주요하게는 적절한 고용과 충분한 소득을 획득하는 데에 실패하여 귀환이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많은 초기 이민 입국자들은 노동시장에 의미있는 진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지위 면에서 불이익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호주 한인의 연간 가구소득은 호주 전체 평균의 65%에 그친다(정용문, 2016a). 두 번째는 목표소득이론(target income theory)로서, 실망이론과 상반된 관점을 제공한다. 이 관점은 귀환이민자들이 목적국에서 정착하여 장기 체류하는 것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귀환이민자들은 목적국에서 충분한 저축과 투자력을 확보한 후 출신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Galor & Stark, 1990). 즉, 귀환은 실패가 아닌 성공의 결과인 것이다. 목적국에서 축적한 경제적 부를 출신국에 활용하여(투자 혹은 유리한 환율 등)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구하는 귀환이민자들도 있으며(Yang, 2006), 유사한 일화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세 번째 관점은 순환이민이론(circular migration theory)이다. 순환이민은 단기성의 반복적인 혹은 주기적인 이민을 말한다. 귀환이민자들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기회와 효용을 제공하는 국가를 찾아 국제이동을 반복한다. 성공이나 실패와 같은 가치판단과는 무관한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이민자와 귀환이민자의 국제이동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이며, 후속적인 이민의 한 과정으로 귀환이민이 위치 지워진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이다. 앞의 세 가지 관점이 대체로 경제적인 동기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관계망 이론은 사회적인 동기를 강조한다. 이민자들은 목적국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시키며, 이 과정이 성공적인 경우 귀환은 지속적으로 연기된다. 사회적 관계망은 귀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상쇄하는 효과를 지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망이 완충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언어 및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개인의 대인관계 추구 성향에 따라 개인적인 편차가 있지만,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에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호주 한인들은 사회적 관계 욕구를 대체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정용문, 2016b),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원천이 되어 귀환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다.

Cassarino(2004)도 귀환이민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그 역시도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신고전주의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초국주의(transnationalism), 사회적 관계망 이론, 그리고 구조적 접근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실망

이론과 유사하게 목적국에서의 노동시장 진입의 실패를 귀환이민의 주요 요인으로 본다. 초국주의는 순환이민이론의 관점과 유사성이 있지만, 두 국가를 넘나드는 거주가 반드시 경제적인 유인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즉, 민족 정체성,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 때문에 두 국가를 오가며 거주하는 것이다. Cassarino는 다른 개념을 사용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대체로 Reyes의 유형화 작업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Cassarino는 더 나아가 구조적(structural) 관점을 추가하고 있다. 구조적 관점은 사회제도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목적국의 차별이나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귀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출신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에도 귀환이민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Richmond, 1984). 이 관점은 귀환이민 결정이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결정이라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이론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모델

어떤 사람들이 귀환이민을 결정하는 지에 대한 호기심은 일찍부터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귀환이민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경험분석이 축적되어 왔다. 귀환이민에 대한 경험분석은 대체로 귀환이민 의향(intention) 분석의 형태를 취해왔다. 그리고 귀환이민 의향은 통상 '있다' 혹은 '없다'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이는 추정컨대 귀향 이민이 출신국과 목적국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의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귀환이민이 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됨에 따라 실패 혹은 성공의 이분법적 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결국, 귀환이민 경험연구들의 상당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de Haas, Fokkema, & Fihri, 2015; Makina, 2012; Thomas, 2008; Waldorf, 1995; Zhao, 2002).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독립변수와의 선형성 관계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분석상의 이점 때문에 더욱 귀환이민 의향 분석에서 더욱 선호되는 모형이다(Makina, 2012).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귀향이민의 의향을 분석하는 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귀환이민 의향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두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를 주저한다. 왜냐하면, 목적국에서 머무는 것과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선호와 비선호의 틀로 결정될 수 없는 장단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들은 중간에 비결정(indecision)이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기도 하였다(Paparusso & Ambrosetti, 2017; Tezcan, 2018). 그러나 이 역시 귀환이민 의향의 연속성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을 실시했다. 선형회귀분석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귀환이민의 의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장점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종속변수를 측정했으며, 독립변수들은 상기 이론적 논의들과 기존 문헌들에서 다루어진 주요 변수들을 추출하여 활용했다.

2) 변수설정

(1) 종속변수

기존 연구들에서 귀환이민 의향에 대한 측정은 보통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졌다. ‘당신은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출신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다’ 혹은 ‘아니다’는 두 가지 응답 범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귀환이민 의향이 하나의 질문으로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고려하여 다수의 질문으로 척도를 구성했다. 국내외 연구에서 귀환이민 의향을 지수화한 척도는 아직까지는 개발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한인 이민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네 가지 질문으로 귀환이민 의향을 측정했다: 1)나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2)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렇다, 3)나는 한국의 친구들이 그렇다, 4)나는 호주에 이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려(consideration) 혹은 계획(plan)의 함의를 가진 ‘의향’을 묻는 질문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앞서 논의했던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의 함의가 포함된 질문들이다. 네 번째 질문에는 이민에 대한 잘못된 결정 혹은 잘못된 계산의 결과로서 귀환이민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접근법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또한 구조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각 질문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후 각 응답을 산술평균하여 귀환이민 의향을 지수화했다. 다수의 지표로 귀환이민 의향을 측정함으로써 측정의 오류를 줄였고, 이에 대한 통계적 조작을 통해 단일지수화함으로써 종속변수의 선형성을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2) 독립변수

Cellea(1986)는 초기 귀환이민에 대한 연구에서 귀환이민 가능성이 높은 다섯 부류의 인구 집단을 선정하 바 있다: 가족의 욕구(자녀의 학업 등)가 있는 사람, 연금수령 연령에 이른 사람, 해외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해외에서 충분한 저축을 축적한 사람, 출신국에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외 개인적 이유(모국에 대한 향수, 건강 상태 등)가 있는 사람. 비슷한 시기에 Rogers(1984)는 귀환이민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이유를 여덟 가지로 제시하 바 있다. 그들의 통찰력 있는 관찰은 이후 후속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본 연구는 귀환이민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귀환이민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를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요인으로서 실망이론 혹은 목표소득이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가구소득과 개인의 인적 자본 관련 변수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학적 변수들이 귀환이민을 촉진할지 아니면 저해할지 그 방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고소득 이민자의 귀환의향은 실망이론과 목표소득이론에 따라 반대로 예측된다(Bijwaard, 2015). 인적자본의 귀환이민 의향 영향력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목적국에서 불이익에 처한 저숙련 이민자들에게서 귀환이민 의향이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고숙련자들이 목적국에서의 고용가능성이 높아 귀환이민을 더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Borjas & Bratsberg, 1996).

두 번째 요인은 목적국에서의 적응 정도와 관련된 요인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구조적 접근과 유사성이 있다. 즉, 이민이라는 맥락에서 사회제도적 요인들이 개인의 거주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요인은 특히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던 비노동시장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Bijwaard & van Doeselaar, 2012). 구체적으로, 시민권 보유 여부, 영어 구사력,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차별 경험 등의 변수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경제적 요인과는 달리 적응 요인들은 귀환이민에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 구조적인 불이익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귀환이민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독립변수의 구성

구분	관련 이론	변수	측정
경제적 요인	실망이론 목표소득이론	가구 소득	연간 가구 소득
		교육수준	-
적응 요인	구조적 접근	시민권 보유	1: 시민권자, 2: 비시민권자
		영어 구사력	1: 전혀 못함 ~ 5: 매우 잘함
		사회보장제도	1: 호주 잘 보호 ~ 5: 한국 잘 보호
		차별 경험	1: 전혀 경험 없음 ~ 5: 매우 자주 경험
생애주기 혹은 시간 의존적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	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
		이민시 연령	-
		거주 기간	-
		부모가 거주국	1: 한국, 2: 호주 (부모 생존 응답자만)

세번째는 시간 의존적(time dependent)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Waldorf, 1995). 시간의존적 요인은 개인의 생애주기적 요인과 시간적 차원으로 관찰되는 이민경험들을 포함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적 요인에는 연령, 부모 생존 여부 및 부모의 거주국 등이 포함된다. 연령이 귀환이민 의향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하게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저연령자일수록 국제 이동에 개방되어 있어 귀환이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Colton, 1993), 은퇴 시점에 이른 이들이 출신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Callea, 1986).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체류기간의 영향도 불명확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다. 대체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목적국에서 적응도가 증가하고, 목적국에서 언어문화적으로 동일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귀환이민 의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체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Dustmann & Weiss, 2007), 체류기간과 목적국에서의 통합정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정용문, 2019a). 또한, 출신국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귀환이민 유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국제 사면 조치에 따라 시작된 한국인들의 호주이민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술 및 투자 이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호주한인50년사 편찬위원회, 2008). 2019년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는 대략 167,000명으로서, 호주는 전체 해외동포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

를 보이고 있다(외교부, 2019).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 호주 이민 체류자의 인구증가로 호주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호주 이민 이유와 경로는 다양하다. 다른 영미권 국가로의 이민처럼 호두로 이민을 선택한 이들은 자녀교육, 투자, 취업,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추구 등의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곽재석 외, 2011). 호주 이민 경로는 더욱 다양하다. 호주 일반 이민(난민 등의 인도주의적 이민 제외)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따르는데, 기술이민, 투자이민 그리고 가족이민이 그것이다. 또한, 이민 체류 비자를 취득, 보유한 상태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의 단기성 체류에서 장기 체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단기 체류비자를 이민 경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Jung, 2018).

본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수집은 호주에서 한국인 커뮤니티 규모가 가장 큰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참고로 호주 거주 한인 이민자의 54.6%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거주하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

〈표 3〉 연구설계

참여대상	호주 거주 한인 이민자 (12개월 이상 장기 거주자)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표본 규모	166명
표본추출 방법	유의표본 추출
자료수집 방법	일대일 면접
조사지역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조사기간	2018년 8월 - 10월

조사 참여 대상자는 호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기 거주자로서, 구체적으로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장기 체류자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했다. 이는 전술했듯이 국제기구가 사용하고 있는 귀환이민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관광, 유학 혹은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귀환이 기정사실로 간주되는 이들은 표본구성에서 제외되었다.

4. 분석 결과

1) 기술분석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많이 표본을 구성하고 있다. 호주 센서스로 측정된 호주 한인의 남녀 비율은 전체적으로 남자 49.3%, 여자 50.3%로서 비슷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성별로 편향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의 연령 기준을 고려하여 20대에서 60대의 근로연령대 호주 한인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게 분포한다(정용문, 2019b). 이러한 모집단의 성별 불균형이 어느 정도 본 연구의 표본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 연구 참여자의 특성(n=166)

변수	값	백분율(%)	비고
성	남자	32.1	-
	여자	67.9	
연령	40세 미만	23.2	평균 43.9세
	40-45세	37.2	
	46-50세	26.8	
	51세 이상	12.8	
비자 유형	호주 시민	50.6	-
	영주권자	45.8	
	기타	1.2	
호주 거주기간	10년 미만	19.3	평균 15.7년
	10-15년 미만	33.0	
	15-20년	22.2	
	20년 이상	23.4	
호주 거주 유인	자연환경	52.4	-
	일과 삶의 조화	27.1	
	사회복지(공평, 다문화, 복지제도)	15.0	
	안전	4.2	
	교육환경	1.2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3.9세며, 40대가 59.8%로서 전체 표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5.7년 동안 호주에 거주해 오고 있는데, 4명 중 1명 정도(23.4%)는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다. 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약 절반(50.6%)이 호주 시민권 보유자들이며, 나머지는 거의 영주권자다.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호주 한인들이 호주에 계속 거주하게 만드는 유인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주요한 유인은 '자연환경'으로서 과반수(52.4%)의 응답자가 이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일과 삶의 조화(27.1%)와 '사회복지(15.0%)' 순으로 나타나, 호주 사회가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높은 사회적 보호수준이 호주 이민 체류의 주요 유입요인임을 시사했다. 상기 사항들은 한국이 비교의 준거로서 적용된 결과로 해석되며, 한국과의 상대적 비교라고 추정할 수 있다. 거주 유인이 이민 동기와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지만, 초기 이민 동기로 직접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 귀환이민 의향 분석

본 연구는 귀환이민 의향을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네 가지 항목으로 측정했다. 첫 번째 항목인 '나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는 진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이 다수로 나타났다('전혀' 25.3%, '어느 정도' 36.7%). 그러나 3명 중 1명 이상(36.1%)은 귀환이민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두 번째 항목인 '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리다'와 세 번째 항목인 '나는 한국의 친구들이 그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공히 '동의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신국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상실한 이민자들에게 관찰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특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높은 동경을 표시하지 않아 모국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동경과 회복이 이민자들의 보편적인 욕구는 아님도 확인되었다.

〈표 5〉 귀환이민 의향 빈도 분석(%)

항목	응답					계
	전혀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모름/ 무응답	
나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25.3	36.7	31.3	4.8	1.8	100.0
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리다	8.4	16.3	53.6	19.9	1.8	100.0
나는 한국의 친구들이 그리다	8.4	18.1	57.2	14.5	1.8	100.0
나는 호주에 이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28.3	34.9	29.5	5.4	1.8	100.0

네 번째 항목인 '나는 호주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전혀' 28.3%, '대체로' 34.9%). 이는 호주 한인들이 대체로 현재의 생

활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가운데('대체로'53.6%, '매우'13.9%),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그쳤다('대체로'7.2%, '매우'1.2%). 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호주 한인들의 행복도는 높으며, 호주로의 이민이 행복도를 상승시켰고, 미래 삶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우세하다(정용문, 2016c). 그러나 3명 중 1명 이상(34.9%)은 호주로의 이민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민을 잘못된 결정 혹은 실패로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적지 않은 이들은 이민이라는 계기로 생애과정에서 삶의 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표 6〉 귀향 이민 의향 상관관계 분석

	나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림다.	나는 한국의 친구들이 그림다.	나는 호주에 이주한 것으로 후회한 적이 있다.
나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1			
나는 한국의 가족이 그림다.	.390** .000	1		
나는 한국의 친구들이 그림다.	.253** .001	.542** .000	1	
나는 호주에 이주한 것으로 후회한 적이 있다.	.451** .000	.278** .000	.331** .000	1

** : 0.01수준에서 유의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귀환 이민 의향 척도로서 적절한 지에 대해 기본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항목간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ronbach's Alpha = 0.704). 요인분석 결과 하위 요인들로 재범주화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단일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회귀분석

회귀분석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우선, 연간 가구소득은 교육수준 그리고 시민권자 여부와 각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변수들과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호주 시민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고, 이주시 연령 또한 낮았으며, 그만큼 거주기간은 길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차별경험 빈도는 낮았으며,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차별 경험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은 흥미로웠다. 성별은 영어구사력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남자가 스스로의 영어구사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과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많지 않은 가운데, 연령과 영어구사력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 계수에 의하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7〉 독립변수 상관관계 분석

	가구 소득	교육 수준	호주 시민	영어 구사력	사회보장 비교	차별 경험	성별	연령	이주시 연령	거주 기간	생존 부모 거주국
가구 소득	1										
교육 수준	.216*	1									
	.014										
호주 시민	-.209*	-.098	1								
	.017	.214									
영어 구사력	.104	.186*	-.275**	1							
	.239	.017	.000								
사회 보장	.032	.191*	.053	-.219**	1						
	.719	.014	.498	.005							
차별 경험	-.140	.181*	.115	-.073	.070	1					
	.113	.020	.145	.350	.370						
성별	-.017	.001	.032	-.328**	.157†	-.015	1				
	.847	.987	.688	.000	.044	.850					
연령	.072	.093	-.059	-.232**	.036	-.041	.076	1			
	.417	.234	.457	.003	.645	.602	.332				
이주시 연령	-.068	.100	.328**	-.555**	.229**	.097	.111	.554**	1		
	.441	.203	.000	.000	.003	.213	.155	.000			
거주 기간	.133	-.038	-.469**	.364**	-.245**	-.154*	-.081	.361**	-.549**	1	
	.129	.630	.000	.000	.001	.048	.302	.000	.000		
생존 부모 거주국	.023	-.109	-.349**	.322**	-.197†	-.236**	-.164†	-.101	-.577**	.534**	1
	.804	.189	.000	.000	.017	.004	.047	.223	.000	.000	

*: 0.05 수준에서 유의미, **: 0.01수준에서 유의미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속변수의 정규성을 테스트했다. 우선 서열변수로 측정된 종속변수의 하위 항목들을 산술평균하여 지수화했다. 결측치를 가진 6사례를 제외한 160 사례에 기초한 정규성 검증 결과, 왜도와 첨도는 각각 -0.297과 -0.287로 나타나 정규분포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 모형의 R 제곱과 조정된 R 제곱은 각각 0.604와 0.560으로 나타나, 모형 설명력이 충분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Cohen, 1988). 회귀식에 대한 선형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F=13.726, sig. = .000).

우선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한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귀환이

민 의향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귀환이민 이론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논의되어 온 소득변수가 한인들의 귀환이민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그 방향성과 관련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귀환이민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전주의 이론에 입각한 실망이론의 설명력이 엇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높은 소득을 성취한 이들의 귀환이민이 높을 것이라는 목표소득이론의 상쇄 효과에 의해 결국 소득 효과는 희석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과 달리 교육수준은 귀환이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귀환이민 의향도 높아졌다. 개인의 높은 인적자본은 귀환 이후에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현재의 소득보다는 귀국 후 미래 소득 획득 능력이 귀환이민 의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민 상황에서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소득의 관련성이 낮은 이유때문이기도 하다(정용문, 2019b). 즉, 인적자본이 높은 개인은 이민국에서 소득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 혹은 보상심리에 의해 대안적으로 귀환이민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민국에서의 적응 요인으로 분류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체류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비자 유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참가자를 호주시민과 비시민(영주권자)으로 분류했다. 예상되듯이, 호주 시민이 아닐수록 귀환이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영어 구사력은 귀환이민에 부정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즉, 영어구사력이 높을수록 귀환이민 의향은 낮아졌다. 영어 구사력은 단지 사회경제적 참여에 필요한 기초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민국 정체성 수용을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정용문, 2019a) 귀환이민을 지체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조적인 접근과 관련된 변수로서 투입된 노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은 귀환이민 의향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즉, 노후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자신을 더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귀환이민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할 만한 사실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노후 생활 보호 능력을 더 신뢰하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상대적 저발전은 귀환이민 의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구조적 변수로서 검토된 호주에서의 차별 경험은 귀환이민 의향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고 있었다. 인종 혹은 언어적인 배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자연스럽게 귀환이민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력도 개인의 이민 경험에 따라 다양한 방향의 의사결정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노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귀환이민 의향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호주의 구조적 차별은 귀환이민 의향을 상승시키게 된다.

〈표 8〉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통계량	유의도
		B	표준오차	Beta		
(상수)		2.258	.595		3.792	.000
경제적 요인	연간 가구소득	-4.616E-7	.000	-.045	-.646	.520
	교육수준	.133	.055	.171	2.415	.018
적응요인(구조적 요인)	호주 시민 여부	.210	.106	.162	1.988	.050
	영어 구사력	-.146	.072	-.184	-2.035	.045
	사회보장제도 비교	.126	.048	.187	2.627	.010
	차별 경험	.246	.086	.195	2.866	.005
생애주기 요인	성별	-.119	.098	-.085	-1.205	.231
	연령	-.040	.022	-.391	-1.795	.076
	호주 이주시 연령	.043	.022	.529	1.933	.056
	호주 거주 기간	.002	.002	.370	1.321	.190
	생존 부모 거주국	-.412	.130	-.270	-3.167	.002

* 종속변수: 귀환이민의향

마지막으로 생애주기 혹은 시간의존적 요인들이 귀환이민 의향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은 귀환이민을 예측하는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다. 대체로 이민 혹은 귀환이민 의향과 관련된 경험연구에서 성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데, 이와 일관된 연구결과다. 단, 성별은 문화적응이나 언어능력 획득 면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Castillo et al., 2015; Polat & Mahalingappa, 2010; Waldorf, 1994), 이민 혹은 귀환이민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한 한 성별은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조사 시점 당시의 연령과 이민 입국시 연령은 귀환이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계적 유의도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지 못했다. 충분한 표본의 크기가 확보되었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귀환 의향은 감소하고, 반면에 이민 입국시 연령이 높을수록 귀환 의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호주에서의 거주기간은 귀환이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거주기간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장기 거주가 이민국의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이다(정용문, 2019a). 즉, 비록 장기 체류자일지라도 이민국에서 통합적이고 지지적인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다면, 귀환이민을 더 강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생애주기 요인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생존 부모의 거주국이었다. 현재 부모가 생존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부모의 거주국을 물었으며, 제 3국을 선택한 응답자를 제외하

고, 부모의 거주국은 한국이 77.6%, 그리고 호주가 22.4%였다.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귀환이민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변수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표준화 계수를 통해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면, 생존 부모의 한국 거주는 귀환이민 의향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함의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귀환이민 의향의 정도와 그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어떤 요인들이 귀환이민의 의향을 촉진하는지를 파악하여, 결국 누가 귀환하고자 하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의 귀환이민 욕구가 더 큰 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산출한 변수들을 토대로 요약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구사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구조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귀환이민 의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달리 표현하면, 인적자본 수준은 높지만 언어능력의 제한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약당하는 사람일수록 귀환이라는 새로운 삶의 경로를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한국에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이민자에게서 귀환에 대한 높은 의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귀환이민 의향에 세대 간 유대 또는 부모 부양에 대한 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이민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과 연관시켜 분석결과를 다시 해석해보면, 실망이론 혹은 목표소득이론 등 경제결정론적 관점들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라는 화폐적 요인의 영향력은 없었지만, 자신의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서 더 많이 제공될 지가 귀환이민 결정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은 대체로 귀환이민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존하고 있는 부모 거주국이 귀환이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기존 이론적 관점에서 간과된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시사했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에 있다. 즉, 차별 혹은 사회적 보호 정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동 혹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연구는 귀환 ‘의향’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다. 의향은 바람 혹은 고려의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 실제 ‘실행’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물론 의향이 있는 이들이 실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의향과는 무관한 우발적 혹은 비자발적 행위들도 존재한다. 의향과

실행 사이의 개념으로 '계획'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계획에는 실행을 위한 일정이나 세부 전략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귀환이민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의향을 가진 이들보다 훨씬 적은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제시된 귀환이민 의향을 귀환이민 실행 예정자로 오인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한인 이민자 인구 규모에 비해 실제로 귀환이민을 실행하는 이들의 비율은 미미하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한인 이민자 귀환이민 의향에 대한 선도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인구 이동 동향으로 새롭게 인지되고 있는 귀환이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또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그 고유성이 부각된다. 즉, 일부 진행된 한인 이민자들의 귀환이민 연구가 탐색적인 차원에서 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에 반해 본 연구는 양적 접근을 시도했다. 게다가, 분석모델 면에서도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 즉,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이 귀환이민 의향을 이항(binary) 변수로 취급하여 양 극단의 연속성을 누락시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분석모델을 적용했다.

회귀분석 모형의 적용은 귀환이민 의향 측정 방식의 변화를 의미했다. 즉, 기존에 단일지표로 측정된 귀환이민 의향을 복수의 지표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함으로써 측정 오류를 줄인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귀환이민 의향을 더욱 세밀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사용한 귀환이민 의향 척도는 향후에 더욱 세밀하게 검증보완될 여지가 있다. 앞으로 타당도 검증을 통해 더욱 엄밀한 방법으로 귀환이민 의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귀환이민을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도 감지된다. 즉,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귀환이민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휘태, 2019). 이는 귀환이민자들이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소위 다문화 이민자들에 비해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또한, 순환이민모델(circular migration model)은 이민 경험이 있는 이들의 인적자본 활용이 국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귀환이민자 개인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정기선 et al., 2011).

본 연구 결과는 이 주장들에 대한 근거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적자본이 높은 해외 거주자들의 귀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귀환을 촉진함으로써 국내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귀환 이민이 출신국에 어떤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지

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와 검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인적자본을 향상한 후 귀국한 이민자는 이를 본보기로 삼는 젊은이들에게 연쇄이민(chain migration) 이출을 촉발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Gmelch, 1980).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귀환이민자 개인의 관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귀환 이민자들은 귀환 이후 출신국에서 재정착(re-adaptation)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귀환이민 의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melch, 1980; Kunuroglu et al., 2016).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의 과열경쟁 문화, 이민국에서 성장한 자녀의 교육,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 등을 귀환 관련 주요 우려로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 인구 규모의 확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잠재력 부상,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매개 및 완충 역할 등에 기초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으로서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재외동포 정책은 크게 한인 이민자들의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해외 이민자의 국내 재이주 혹은 정주화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지원도 정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하지만 이는 중국 등 일부 지역 동포의 귀환 욕구에 대한 한정된 대응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곽재석, 2011). 작금 관찰되고 있는 귀환이민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한인 이민의 한 경향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향후 재외동포 정책은 거주국에서의 통합적 지위 구축 지원과 모국 귀환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원 정책(two-track policy)으로서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귀환 이민과 관련하여, 우선 전반적으로 재외동포의 귀환에 대한 의향 혹은 욕구 파악이 요구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민 경로와 역사가 목적국별로 상이하듯이 귀환이민 욕구 역시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가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별로 세분화된 접근을 위한 귀환이민 연구가 더욱 촉진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일차적으로 해외 거주 중인 한인 이민자에 제한된 관련성을 가지지만, 연구의 발견점들은 이민자 일반에게도 그 적용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이민과 재이민 동기 등 인구의 역동적인 국제이동에 대한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국내 거주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포용적인 사회환경과 사회보장체계 등의 구조적 요인들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통합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동기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참고문헌 ■

- 김영철 (2016). 아르헨티나 재외동포 1.5세의 역이민과 정착 연구. *한국민족문화*, 60, 83-111.
- 곽재석, 예동근, 장현일 (2011). 재외동포의 이주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김휘태 (2019). 지방소멸, 출산과 이민정책. <http://www.andong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
- 세계한민족문화대전. (2018). 귀환 이민.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localCode=naw&contentsId=GC95100733>
- 외교부 (2019). 2019 국가별 재외동포 조사현황 공개: 외교부.
- 윤인진 (2011). 이민. Retrieved from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4308>
- 이미숙 (2017). 해외취업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국 (2016).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거지? 한국일보.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60104/962299>
- 정기신, 전광희, 은기수, 김석호, 강동관, 이정우, 최서리 (2011).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 통합 정책방향 연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
- 정용문 (2016a). 우리는 누구인가?: 통계로 본 호주 한인들의 삶과 의식(경제적 지위).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40>.
- 정용문 (2016b). 우리는 누구인가?: 통계로 보는 호주 한인들의 삶과 의식(사회참여).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23>
- 정용문 (2016c). 우리는 누구인가?: 통계로 보는 호주 한인들의 삶과 의식(행복도).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40>
- 정용문 (2019a). 이민자 정체성 재구성: 호주 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패턴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정책*, 26(3), 29-54.
- 정용문 (2019b). 호주 한인 통계: 호주리서치센터.
- 통계청 (2020). 해외이주신고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4
- 호주한인50년사 편찬위원회 (2008). 호주한인50년사. 진흥.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Retrieved from <https://www.abs.gov.au/websitedbs/censushome.nsf/home/tablebuilder>
- Bijwaard, G. E. (2015). Income of immigrants and their return: IZA World of Labor
- Bijwaard, G. E., & van Doeselaar, S. (2012). The Impact of Divorce on Return-Migration of Family Migrants: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 Borjas, G. J., & Bratsberg, B. (1996). Who Leaves? The Outmigration of the Foreign-Bor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8(1), 165-176.
- Callea, S. (1986). Diferent Forms, Reasons and Motivations for Return Migration of Persons who Voluntarily Decide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International Migration*, 24(1), 61-76.
- Cassarino, J.-P. (2004). Theorising Return Migration: The Conceptual Approach to Return Migrants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6(2), 253-279.

- Castillo, L. G., Navarro, R. L., Walker, J. E. O. Y., Schwartz, S. J., Zamboanga, B. L., Whitbourne, S. K., . . . Vazsonyi, A. T. (2015). Gender Matters: The Influence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Latino College Student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3*(1), 40-55.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Routledge.
- Colton, N. A. (1993). Homeward Bound: Yemeni Return Migrati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7*(4), 870-882.
- de Haas, H., Fokkema, T., & Fihri, M. F. (2015). Return Migration as Failure or Success? *International Migration & Integration, 16*, 415-429.
- Dustmann, C., & Weiss, Y. (2007). Return Migration: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K.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5*(2), 236-256.
- Galor, O., & Stark, O. (1990). Migrants' Savings, the Probability of Return Migration and Migrants' Performanc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1*, 463-467.
- Gmelch, G. (1980).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9*, 135-159.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8). *Return Migr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9). *Glossary on Mi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Jung, K., & Jung, Y. (2019). Neoliberal Migration Regime, Escape from 'Hell Joseon' and the Pursuit of Cosmopolitan Aspiration: An Overview of Temporary Migration from South Korea to Australia. *16*(1), 41-68.
- Jung, Y. (2015). *Being Australian? A Study of Korean Australians' Social, Economic & Political Participation in Australian Society*: University of Sydney.
- Jung, Y. (2016). Intersectionality of migration and ageing: impact of migration on quality of life older Korean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Jung, Y. (2018). A Pathway to long-term residen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participating in Australian 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 Kunuroglu, F., van de Vijver, F., & Yagmur, K. (2016). Return Migration.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9707/2307-0919.1143>
- Lee, J. Y., Friesen, W., & Kearns, R. A. (2015). Return migration of 1.5 generation Korean New Zealanders: Short-term and long-term motives. *New Zealand Geographer, 71*, 34-44.
- Makina, D. (2012). Determinants of return migration intentions: Evidence from Zimbabwean migrants living in South Africa. *Development Southern Africa, 29*(3), 365-378.
- Paparusso, A., & Ambrosetti, E. (2017). To stay or to return? Return migration intentions of Moroccans in Italy. *International Migration, 55*(6), 137-155.
- Polat, N., & Mahalingappa, L. J. (2010). Gender Differences in Identity and Acculturation Patterns and L2 Accent Attainment.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 Education, 9*(1), 17-35.
- Reyes, B. I. (1997). *Dynamics of Immigration: Return Migration to Western Mexico*: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 Richmond, A. H. (1984). Explaining return migration. In D. Kubat (Ed.), *The politics of return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pp. 269-275):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Rogers, R. (1984).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D. Kubat (Ed.), *The politics of return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pp. 277-298):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Segal, U. A. (2016).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return migration. In Q. Xu & L. P. Jordan (Eds.), *Migrant Workers: Social Identity, Occupational Challenges and Health Practice* (pp. 171-190): Noval Science Publishers.
- Tezcan, T. (2018). 'I (do not) know what to do': how ties, identities and home states influence Mexican-born immigrants' return migration intentions. *Migration and Development*, 7(3), 88-411.
- Thomas, K. J. A. (2008). Return Migration in Afric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r Market Success: Evidence from Uganda.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3), 652-674.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1998). *Recommendations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Waldorf, B. (1994). Assimilation and attachment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ase of guestworkers in Germany. *Papers in Regional Science*, 73(3), 241-266.
- Waldorf, B. (1995).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return migration intentions. *Professional Geographer*, 47(2), 125-137.
- Yang. (2006). Why do migrants return to poor countries?: Evidence from Philippine migrants' response to exchange rate shock.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715-733.
- Zhao, Y. (2002).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turn Migration: Recent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0, 376-394.

◀ Abstract ▶

Determinants of Return Migration Intention: The Case of Korean Australians

Yong Moon Jung*

Return migration, as an emerging trend of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of Koreans, has recently attracted scholarly attentions. This is an empirical study of Korean emigrants, of which the primary aim is to establish a knowledge base of who has a (higher) desire to return. This study unprecedentedly adopted a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involving Korean Australians. While most of past studies utilised a binary analysis model, which was considered as having a limitation in reflecting the continuity of the concept of intention, this study implemented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nstructed as economic, adaptation, and personal life cycle categories. The insights obtained by this study trigger the necessity for follow-up studies, which would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 findings to other Korean migrants and further to non-Korean migrants in general.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factors including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return migration intention, which would enable informed policy making for migrants.

Keywords: return migration, intention, determinants, Korean Australians

◆ 2020. 7. 31. 접수 / 2020. 9. 7. 1차수정 / 2020. 9. 9. 게재확정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nam University (ymjung@kyungnam.ac.kr)